

2024년 5월 19일. 19 May 2024
금문교회 성령강림주일예배. GGPC Pentecost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If you then, who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the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누가복음 Luke 11:13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2024년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성삼위 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죄하시는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성령충만 받아서, 온 땅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

The Christian with the Holy Spirit

사도행전 Acts 2:1-4; 27:27-44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When the day of Pentecost arrived,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sound like a mighty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entir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And divided tongues as of fire appeared to them and rested[a] on each one of them.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27.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When the fourteenth night had come, as we were being driven across the Adriatic Sea, about midnight the sailors suspected that they were nearing land.

28.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가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So they took a sounding and found twenty fathoms. A little farther on they took a sounding again and found fifteen fathoms.

29.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And fearing that we might run on the rocks, they let down four anchors from the stern

and prayed for day to come.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And as the sailors were seeking to escape from the ship, and had lowered the ship's boat into the sea under pretense of laying out anchors from the bow,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Paul said to the centurion and the soldiers, "Unless these men stay in the ship, you cannot be saved."

32.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Then the soldiers cut away the ropes of the ship's boat and let it go.

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As day was about to dawn, Paul urged them all to take some food, saying, "Today is the fourteenth day that you have continued in suspense and without food, having taken nothing.

34.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것이 없으리라" 하고,
Therefore I urge you to take some food. For it will give you strength, for not a hair is to perish from the head of any of you."

35.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And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took bread, and giving thanks to God in the presence of all he broke it and began to eat.

36.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Then they all were encouraged and ate some food themselves.

37.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명이더라.
(We were in all 276 persons in the ship.)

38.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And when they had eaten enough, they lightened the ship, throwing out the wheat into the sea.

The Shipwreck

39.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Now when it was day, they did not recognize the land, but they noticed a bay with a beach, on which they planned if possible to run the ship ashore.

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So they cast off the anchors and left them in the sea, at the same time loosening the ropes that tied the rudders. Then hoisting the foresail to the wind they made for the beach.

41.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쳐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But striking a reef, they ran the vessel aground. The bow stuck and remained immovable, and the stern was being broken up by the surf.

42.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The soldiers' plan was to kill the prisoners, lest any should swim away and escape.

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But the centurion, wishing to save Paul, kept them from carrying out their plan. He ordered those who could swim to jump overboard first and make for the land,

44.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and the rest on planks or on pieces of the ship. And so it was that all were brought safely to land.

오늘은 2024년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 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각각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금문교회가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에, 성령강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열 두 제자를 포함한 120명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 모두 120명이 한 결 같이 하나님의 성령님께 충만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교회는 120명의 범위를 넘어서서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온 세계에 퍼져나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모인 때였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생활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랐습니다. 120명이 모두 입을 열어 그들 여러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이 알아듣도록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언어변화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이후에 그들은 “메시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들 두 가지는 인간구원의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구세주이심을 마침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And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in the Holy Spirit.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3c

사도바울은 이때 오순절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된 자들은 물론, 이때 온 세상으로부터 와서 성령충만한 120명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각처로 퍼져나간 자들과 그들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Acts 22:18

바울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27-44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마를 향해 항해하던 그 배가 파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감동 받은 바울은 그들 중에 일어나, 함께 항해하던 모든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아멘신앙"을 선포했습니다.

27.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When the fourteenth night had come, as we were being driven across the Adriatic Sea, about midnight the sailors suspected that they were nearing land.

풍랑 만난 지 벌써 14일이 되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저리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아드리아해는 이탈리아반도와 그리스 사이 해협입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28.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So they took a sounding and found twenty fathoms. A little farther on they took a sounding again and found fifteen fathoms.

바닥의 깊이를 잰습니다. 스무 길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열 다섯 길입니다.

29.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And fearing that we might run on the rocks, they let down four anchors from the stern and prayed for day to come.

그러면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초입니다. 닻을 네 개나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And as the sailors were seeking to escape from the ship, and had lowered the ship's

boat into the sea under pretense of laying out anchors from the bow,

보십시오. 사공들이 저만 살기로 하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돛을 내리는 체 하고,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장과 항해사가 도망친 "세월호"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Paul said to the centurion and the soldiers, "Unless these men stay in the ship, you cannot be saved."

바울이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죄수였고, 얼마 전까지 그의 의견은 무시당했던 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32.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Then the soldiers cut away the ropes of the ship's boat and let it go.

바울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구명보트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백부장에게도 군인들에게도, 모두 바울이 강력한 리더(leader)였습니다.

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As day was about to dawn, Paul urged them all to take some food, saying, "Today is the fourteenth day that you have continued in suspense and without food, having taken nothing.

날이 새어갑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했다.

이들은 벌써 14일을 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진한 오천 명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나,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이 배 중에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오직 바울 뿐입니다. 그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34.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것이 없으리라" 하고,

Therefore I urge you to take some food. For it will give you strength, for not a hair is to perish from the head of any of you."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 기력을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것이 없으리라!

과연 자녀들의 머리카락도 모두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었습니다.

35.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And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took bread, and giving thanks to God in the presence of all he broke it and began to eat.

떡을 가져다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챙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와 동행하던 아리스다고와 누가도 취사를 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입니다.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은 입맛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다가, 한두 사람씩 음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36.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Then they all were encouraged and ate some food themselves.

마침내 그들 모두가 다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37.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명이더라.
(We were in all 276 persons in the ship.)

비로소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276명! 한 명도 실종된 자가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8.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And when they had eaten enough, they lightened the ship, throwing out the wheat into the sea.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오병이어 때처럼, 광주리에 남길 정도로 충분히 많이!

이후 그들은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The Shipwreck

39.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Now when it was day, they did not recognize the land, but they noticed a bay with a beach, on which they planned if possible to run the ship ashore.

날이 샅았습니다.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보였습니다.

배를 거기 댈 수 있는가?

의논했습니다.

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So they cast off the anchors and left them in the sea, at the same time loosening the ropes that tied the rudders. Then hoisting the foresail to the wind they made for the beach.

닻을 끊어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키를 풀고, 돛을 달았습니다.

마침 바람이 해안으로 불었습니다.

41.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쳐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But striking a reef, they ran the vessel aground. The bow stuck and remained immovable, and the stern was being broken up by the surf.

그런데 바닷물 두 흐름이 합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배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물이 깨져가기 시작했습니다.

42.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The soldiers' plan was to kill the prisoners, lest any should swim away and escape.

군인들이 죄수들을 염려했습니다. 각자 도망쳐 육지로 들어가 버리면 놓치는 것입니다. 해서 군인들은 “죄수들을 여기서 다 죽이자!” 했습니다.

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But the centurion, wishing to save Paul, kept them from carrying out their plan. He ordered those who could swim to jump overboard first and make for the land,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해서 군인들을 말려,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았던 것이며, 거의 예외 없이 죄수를 죽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각자 물에 뛰어내려 육지에 나아가라!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죄수를 포함한 모든 자에게 바다로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각자 헤엄쳐 육지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44.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and the rest on planks or on pieces of the ship. And so it was that all were brought safely to land.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붙들고 헤엄쳐, 마침내 육지에 상륙되었습니다. 모두 무사했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충만한 바울이, 위기를 만난 276명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켰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에 감동 받은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지위를 사용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 받고 육지에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바울을 사용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바울의 지휘아래 그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러, 제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지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불상히 여기는.

오늘 누가 한반도, 한국인의 좋은지도자입니까?
오늘 누가 미국 수많은 인종의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선한 목자" 된 이가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인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핍박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목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내 양을 치라! Ten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그들의 핍박 행위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로마서 Romans 12:21

그리하여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며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증거하고, 마침내 로마에서 증거 하기 위하여 항해하듯,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어디든지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소금역할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화목제물에 쓰인 제물의 일부였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중심입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는 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깊은 뜻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파괴하고 죽여서 자기의 이익을 크게 하는 자들입니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주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신 주님. 저희들을 부르사, 성령충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주여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